

## 해 외 출 장 복 명 서

|   |  |   |     |                    |     |            |
|---|--|---|-----|--------------------|-----|------------|
| 출 장 자                                     | 소 속  | 평등정책연구실,<br>가족연구실   | 직 위 | 연구위원<br>전문연구<br>원  | 성 명 | 김이선<br>김인순 |
| 출장기간                                      | 6. 24- 27  |   | 출장지 | 일본 동경,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     |            |
| 출장목적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공생 정책과 서비스 현황 파악<br>재일한인 및 외국인 거주민 인터뷰                   |   |     |                    |     |            |
| 경비부담                                      | 우리원 부담(기본연구사업비, 연구관련사업비, 수탁연구사업비)<br>( 4,786 천원, 객원연구원 1인 포함 총 3인 출장비) |   |     |                    |     |            |
|   |  |   |     |                    |     |            |
| 주최기관                                      | 본원   |   |     |                    |     |            |
| 방문기관                                      |  | 면담자   |     | 협의사항               |     |            |
| 후레아이관                                     |  | 배중도 관장  |     | 붙임자료 참조            |     |            |
| 사쿠라모토 보육원                                 |  | 남궁성근 부원장  |     |                    |     |            |
| 가와사키시 교육문화회관                              |  | 가와사키시 교육문화회관<br>사회교육진흥계 주사<br>Ichiro Toyoda, Sonoe<br>Fujibayashi |     |                    |     |            |
| 가와사키시 시민·어린이<br>국 인권·남녀공동참획실<br>외국인시민시책담당 |  | 주간 Takamura Kenji   |     |                    |     |            |
| 인권·남녀공동참획실                                |  | 과장보좌 Nomoto Noriko  |     |                    |     |            |
| 재일코리안청년연합(KEY)                            |  | 김봉양 공동대표  |     |                    |     |            |

붙임 : 해외출장결과보고서

2008. 8. 20.

출 장 복 명 자 : 김이선 연구위원  
김인순 전문연구원

##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보고자 : 김이선(평등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김인순(평등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 1. 출장 목적

-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있어 한국사회와 흔히 비교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다문화사회의 전개 양상과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파악함. 특히, 일본에서도 다문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는 가와사키 시(구)의 다문화 공생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사회에 적용 가능한 벤치마킹 사례를 발굴하고자 함.
- 재일한인을 비롯한 이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과 이와 관련된 정책적 대응에 대한 풀뿌리 차원의 평가와 의견을 파악하고자 함.

## 2. 방문기관 : 총 6개 기관

- 가와사키시 후레아이관
- 사쿠라모토 보육원
- 가와사키구 교육문화회관
- 가와사키시 시민·어린이국 인권·남녀공동참획실 외국인시민정책담당
- 가와사키시 인권·남녀공동참획실
- 재일코리안청년연합(KEY)

### \* 개별인터뷰: 2인

- 이향진 (가와사키시 총무부 교류추진과)
- Dougal McNeil (뉴질랜드 출신 외국인) 비공식인터뷰

## 3. 세부일정

| 날짜       | 방문기관 및 담당자  |
|----------|---|
| 6. 24(화) | 서울--> 동경 --> 가와사키<br>13:00 가와사키시청 출발<br>13:30-15:30 후레아이관<br>15:40-17:00 사쿠라모토 보육원(재일대한기독교 가와사키 교회) |
| 6.25(수)  | 09:00-11:00 가와사키구 교육문화회관<br>13:00-14:00 가와사키시 인권 남녀공동참여실<br>14:00-16:00 가와사키시 외국인정책담당               |
| 6.26(목)  | 10:00-12:00 재일코리안청년연합(동경)<br>18:00-20:00 Dougal McNeil 비공식인터뷰                                       |
| 6.27(금)  | 가와사키-->동경 --> 서울  |

## <인터뷰 세부내용>

[1] 2008. 6. 24. 오후 13:30~15:30

장소 : 사쿠라모토 후레아이관

인터뷰 대상자 : 배중도 관장

### ○ 후레아이관 소개

- 후레아이관은 일본인과 한국조선인을 중심으로 하는 재일외국인이 시민으로서 어린 이부터 노인까지 서로의 상호접촉을 권장한다는 일을 목적으로 한 전국에서 첫 번째 시설로서 1988년 6월에 오픈함.
- 이 시설은 사회교육시설로서의 ‘가와사키 후레아이관’과 아동관으로서의 ‘가와사키 사쿠라모토 어린이 문화센터’의 두가지 기능 및 역할을 가진 ‘통합합축시설’임.
- 초기 후레아이관은 가와사키시 교육위원회 사회교육과, 어린이문화센터는 가와사키 시 민생국 청소년과가 소관하였음.
- 최근 시민어린이국 청소년육성과에 소관이 일체화 되었음.
- 시설은 시가 100% 소유하고 있으며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하여 1억4천만엔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음.
- 시가 시설의 운영일 사회복지법인 청구사에 위탁을 하였음.
- 13명 상근 직원을 포함하여 총 60명의 직원이 있음. 비상근 직원은 주로 맞벌이 부부 보육지원 사업인 와쿠와쿠 프라자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는 시민어린이국 예산과 교육위원회 예산에서 지원을 받음.

### ○ 후레아이관 건설 경과

- 후레아이관이 생긴 가와사키시 사쿠라모토구는 가와사키시구의 남부에 위치한 재일 한국조선인의 집거 지역이다. 2007년 12월 현재 가와사키시에는 30,592명의 외국국 적자가 살고 있으며 가와사키구에만 11,254명이 살고 있고 이중 4,693명이 재일한국 조선인이다.
- 1969년 이래, 지역에서 보육원사업 등에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청구사(재일대 한기독교회 가와사키교회를 모체로 해 1973년에 법인인가를 받음)는 1982년 ‘사쿠라 모토지구 청소년회관(가칭) 설립등에 관한 통일요망서’를 가와사키 시장 앞으로 제출 함.

- 가와사키시는 이에 응해 검토에 들어가 시청내 각부서로 구성된 ‘설치구상위원회’를 만들고 청구사와 협의를 했수로 7년에 걸쳐 계속함. 회관은 어린이 문화센터의 역할을 맡음과 동시에 민족의 벽을 넘고 일본인과 재일한국조선인과의 교류,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상호교류를 깊게하는 시설로써 계획되어짐.
- 재일한국조선인이 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된다면 일본인이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반대함.
- 사쿠라모토 마을자치회 관계자는 “회관건설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일본인과 재일한국조선인이 교류하는 장소는 사쿠라모토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고 시가 구상하는 회관을 사회복지법인 청구사에 민간위탁하는 것을 반대함.
- 1986년 이후 지역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청구사가 나라의 인가를 얻은 법인으로 장년의 보육원사업운영과 초중고등학생의 지도에 실적을 보여주고 후레아이관이 ‘가와사키시 재일외국인 교육기본방침’에 기초해 일본인과 재일한국조선인 아동의 동정심을 가진 따뜻한 인간성, 국제적인 감성을 키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홍보함.
- 수없이 교섭을 거듭한 결과 1987년 6월 29일 가와사키시와 지역 5개 마을자치회 사이에 합의를 보게됨.
- 합의 내용은 후레아이관을 가와사키시가 설치하고 운영은 청구사에 위탁한다. 지역주민대표, 학식경험자, 청구사, 행정 등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조직하고 후레아이관의 사업내용, 직원의 파견기간 등에 대해서 검토 협의한다. 관장 및 직원 2명을 파견한다. 청구사 이사회에 가와사키시 직원 1명을 파견한다.
- 그 결과 건설비 1억6천만엔을 들여 철근콘크리트 2층건물, 연면적 630㎡의 규모로 건설되어 1988년 6월 14일 오픈함.

## ○ 후레아이관과 다문화공생

- ‘다문화’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현재 필리핀, 브라질, 태국 청소년들이 시설을 사용하고 있음.
- ‘다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후레아이관은 일본인과 재일한국조선인 그리고 그 외 재일외국인들이 시민으로서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열고 상호교류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상호교류는 서로의 역사문화 등을 이해하는데서 시작된다고 이해함.
- 가와사키시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 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차별을 없애고,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창조하고자 함.
- 재일한국조선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개나리클럽과 다민족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다갯토클럽이 운영되고 있음.

- 중학교학습서포트 활동에는 2007년 6월 현재 5개국적 8명이 등록을 하였고 필리핀어, 한국어, 일본어 3개국어를 사용하는 16명의 볼란티어가 있다.
- 뉴커머들을 위한 일본어 학습 제공. 후레아이관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언어 보다는 학습에 필요한 언어를 가르치고 있음. 뉴커머 학부모들이 학습관련 언어를 접할 기회가 없어 자녀교육에 어려움이 있음.
- 성인 일본어 학습에서는 8개국 42명이 등록을 하였음.
- 앞으로 재일한국조선인 외 다른 외국인들도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자 함. 그러나 후레아이관은 국제이해문화관이 아님. 삶,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함.
- 다문화공생은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음. 그러나 외국인을 관리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하는 외국인관리주의와 다함께 어울려 사는 다문화사회를 창조하고자 하는 공생주의가 서로 충돌하고 있음.

## ○ 후레아이관의 활동

- 아동관시설과 사회교육시설이 합축, 통합운영되고 있으며 관의 활동은 일상적으로 어린이 중심의 활동과 대여관업무이다. 연간 다양한 사회교육강좌를 제공한다.

### 1) 사쿠라모토 문화센터(아동관 기능)

- 어린이 놀이지도와 각종 행사 개최
- 와쿠와쿠 프라자 운영: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일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시민활동 등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전 시의 초등학교에 어린이방을 개설함. 후레아이관은 2007년 6월 현재 사쿠라모토소학교(70명), 히가시사쿠라모토소학교(142명), 오오시마소학교(204명), 히가시오오시마소학교(175명) 4 개교내에 설치된 프라자를 운영하고 있음.
- 코도모노 모리 클럽: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및 휴식처 제공.
- 어린이 문화학습 써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키우며,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각종 써클, 클럽활동, 학습활동을 육성함.
- 한국조선의 민속악기를 배울 수 있는 어린이 장구클럽
- 재일한국조선인 어린이 대상 개나리클럽
- 필리핀계 어린이 대상 다갯토클럽

### 2) 후레아이관(사회교육기능)

- 후레아이 강좌: 인권존중, 가정교육, 성인, 민족문화(무용, 장구, 가야금, 민요 등), 한글, 요리, 모국어, 사회교육 연구집회 등
- 한교연계 사업: 시교육위원회의 민족문화 후레아이(다민족공생) 사업과 연계하여 재

일한국조선인의 문화를 소개하는 사업으로서 놀이와 악기의 워크숍과 연극 ‘삼년고개’의 발표공연을 실시하고 있음.

-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활동: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강사 파견, 관에서의 연수를 통해 차별, 편견을 없애며 더불어 사는 사회의 창조를 추구함.

[2] 2008. 6. 24. 오후 15:40~17:00

사쿠라모토 보육원

인터뷰 대상자 : 남궁성근 부원장

### ○ 보육원 소개 및 현황

- 보육원은 사쿠라모토 지역에 위치한 재일대한기독교 가와사키교회가 지역봉사활동의 하나로 1969년 개설함.
- 이를 모체로 1974년 사회복지법인 청구사가 가와사키시로부터 정식인가를 받고 생5개월부터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아이들을 보육하는 시설로 설립되었음.
- 일본인과 재일한국조선인 모두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보육원에서는 재일한국조선인 부모들의 본명사용을 기본방침으로 정함.
- 1972년부터는 재일한국조선인 원아들에게도 본명 사용을 권장하기 시작.
- 재일외국인의 구성 변화로 오늘날 보육원은 다민족 다문화 보육원이 되었음.
- 국적이란 말보다 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함.
- 현재 63명의 어린이 일본문화 38명, 한국조선 17명, 브라질, 1명, 페루 1명, 중국 2명, 필리핀 4명.
- 보육원은 유치원과 달리 맞벌이 부부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함.

### ○ 보육원과 다문화공생

- 모든 부모들은 보육사 연수 당시 다문화공생에 대한 교육을 받음.
- 보육원 내에는 6개 국어(일본어, 중국어, 필리핀어, 스페인어, 브라질어, 한국조선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음.
- 가능하면 모어로 부모들과 의사소통하고자 함.
- 부모들이 직장 성격상 일본어를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어로 된 그림책을 번역 제공하여 부모들이 아이들과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게 하고자 함.
- 자연스럽게 이중언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보호자 회의에서는 정기적으로 강사를 초청 동시통역으로 강연을 진행함.
- 최근 재일외국인 뉴커머들은 재일한국조선인들과는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최근 보증인 문제 때문에 집을 구하기 어려웠던 부부에게 청구사가 보증인이 되어 주었고 외국인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 보증제도 도입을 제안했음.
- “다문화공방” 이라고 하여 아이들을 온실에서 키운다는 비판도 있음.
- 원아들과 함께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다양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함.
- 국적에 대해 매우 예민함. 국적조건에 대해 매우 비판적임.
- 한 원아는 소방수가 되고 싶었는데 국적을 바꾸지 않는 이상 불가능함.
- 화재 진압을 하는 사람에게 국적이 왜 필요한가라는 문제제기를 함.

[3] 2008. 6. 25. 오전 09:00~11:00

가와사키구 교육문화회관

인터뷰 대상자 : 사회교육진흥계 주사 Ichiro Toyoda, Sonoe Fujibayashi

### ○ 가와사키구 교육문화회관 소개

- 가와사키구는 공장지역, 고령인, 외국인이란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가와사키시는 각 구에 1개의 시민관과 분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음.
- 가와사키구는 다이시와 타치마 분관 그리고 가와사키구 교육문화회관을 운영함.
- 가와사키구 교육문화회관은 1967년에 설립되었으며 조리실과 2,000명 규모의 대강당을 가지고 있음.
- 조직은 크게 관리, 프로그램, 모집 3 부분으로 나뉘져 있음.
- 1층 접수는 민간단체에게 위탁을 하였음.

### ○ 프로그램

- 크게 인권존중과 공생사회 창조, 시민의 자주적 학습 시스템, 마츠리 시민활동으로 나뉘져 있음.

#### 1) 사회참가 공생추진 학습

- 사회참여가 어렵거나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을 함.
- 시민이 불란티어로 참여 일본어 학습, 중학교 교육, 지적장애자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램 운영.

2) 시민자치 기초

- 자주적 시민 양성을 위하여 평화인권 학습, 남녀평등 학습 등 운영
- 시민관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어린이방 서비스 제공
- 가정지역교육학급 운영

3) 시민학습

-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자주학급 주제 공모 및 운영
- 볼란티어 양성교육 재연수
- PTA 지도자 연수
- 강사파견 강연회 지원 외 학습정보제공, 팸플릿 홍보자료 개발

4) 시민행정 협동네트워크

- 시민, 행정, 시민단체, 가정 관계자로 구성된 지역교육협회 구성 총회, 총무부, 연구회, 어린이회 운영.
- 학교지원을 위한 협회 설립 후 활동 및 조직 확산
- 과제별 연계사업으로 문화협회와 협력하에 시민관에서 참가자 모집 문화협회에서 프로그램 운영.

5) 교육문화회관 기반정비

- 장소 제공 및 환경 정비, 홍보 활동
- 시 월간정보지에 홍보
- 운영심의회 소집

6) 현대적 과제 대응사업

- 4월부터 시작하여 고령화사회에 대응하여 고령자 사회참여 권장
- 지역 볼란티어 활동 보고, 요리, 취미활동, 문화, 친구동료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사회인 학급으로 저녁 주말에 식자학급과 보육원 서비스 제공

○ 다문화공생 관련 프로그램

- 일본어, 모국어, 외국인시민생활 학습 등 3 가지 있음. 모국어 학습은 6개국어
- 일본어 학습은 수요일 저녁 뉴커머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영. 일본어광장-니혼고히로바는 외국인시민 또는 일본어가 부자유로운 사람들에게 일본어나 문화습관 등의 학습을 지원함. 볼란티어들에 의해 진행됨.
- 현재 250명 등록 중국인 최대 70명 외 인도, 한국인,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집트, 우크라이나, 러시아, 볼란티어 40명.
- 7월 13일 서머파티를 개최하여 각국 요리 및 노래 발표회, 한 볼란티어는 재즈 공

연을 기획 중이라고 함.

- 일년에 40회 ABC 수준별로 나눠 5-6명 팀을 구성하여 학습 운영.
- A 기초반은 일상생활에서 최저 필요한 단어, 회화나 습관, 히라가나 읽기나 쓰기를 중심으로 공부함. B 초급반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회화, 히라가나, 가타가나, 한자의 읽기쓰기를 중심으로 공부함. C 중상급반은 일상생활의 회화나 일본어 문장 쓰는 방법이나 독해, 한자 등을 중심으로 공부함.
- 주로 아는 사람, 인터넷, 일본인으로부터 듣고 수강 신청을 한다고 함.
- 불란티어 연수 내용 중 다문화 교육: 외국어 배우는 심정 알기 체험, 신조어 교수법
- 모어 학습은 시민들이 자주적으로 운영 작년에는 10개 운영됨. 네이티브의 말로 학습할 수 있는 아이를 위한 모어급, 진급, 처음 배우는 아이를 위한 입문 수업. 올해부터 이문화체험 시도로 1시간 연장.
- 모어학습은 외국에 루트를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는 자신의 말이나 문화를 배워 자부심을 가지는 자기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지원합니다. 일본인 아이에게는 다문화를 접할 기회를 주고 국제감각을 기릅니다.
- 작년 중국인 상담 창설.
- 외국인시민의 생활학습: 일본의 생활에 필요한 제도 규칙을 배우는 학습. 교통의 규칙, 병원보건, 소비생활, 연금생명보험, 학교교육 주제. 영어, 중국어, 한국조선어 3개국어로 진행.

[4] 2008. 6. 25. 오후 13:00~14:00

가와사키시 인권 남녀참여실

인터뷰 대상자 : 과장보좌 Nomoto Noriko

## ○ 가와사키시 인권시책

- 가와사키시의 종합계획인 ‘가와사키시 재생액션플랜(2005년3월 책정)’에서는 ‘인간을 육성하고 마음을 키우는 도시 만들기’ 정책을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기본방향은 ‘인권을 존중하고 공생하는 사회 만들기’이다.
- 인권을 존중하고 공생하는 사회 만들기는 2007년 가와사키시가 만든 인권시책기본계획의 일부이다.
- 인권시책기본계획은 외국인시민시책, 남녀평등시책, 어린이 권리시책, 동화시책, 평화시책이 포함되어 있다.
- 다문화공생과 관련하여 외국인시민시책에는 1996년 책정된 가와사키시 외국인대표

자회의 조례와 2004년에 책정된 다문화공생사회추진 지침이 있다.

[5] 2008. 6. 25. 오후 14:00~16:00  
가와사키시 외국인시민시책담당  
인터뷰 대상자 : 주간 Takamura Kenji

### ○ 외국인시민시책

- 2.3%~4% 시 인구가 외국인이며 최근 중국문화와 인도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였음.
- 외국인시민시책의 대표적인 정책은 외국인대표자회의임.

### ○ 외국인대표자회의

- 지난 10년 동안 지속되어 왔음. 의무교육 부문에서는 체계화 된 상황이지만 그 이후 준비에 미비하며 최근 고등학교 진입 지원에 필요성을 제언하였음. 재해 정보와 행정에 있어서 언어 지원에 필요성을 제언함.
- 1995년 대법원이 헌법은 외국인선거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다. 이후 지자체에서 참정권 및 외국인 시정 참여권에 대해 검토를 시작함.
- 1994년 가와사키 시의회가 의견서를 제출함.
- 1996년 10월 가와사키시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 조례가 제정되었고 동년 12월 제1회 회의가 개최됨.
- 회의의 목적은 외국인시민의 시정참가를 추진하고 시민의 상호이해와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
- 연 8~9회 열리는 회의에서 테마를 정해 조사심의하여 논의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함. 또한 제안(제언)을 시장에게 제시할 수 있음.
- 10년간 대표적인 제언

- 1) 교육환경 개선: 교육위원회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두고 국제이해 교육담당자를 둔다. 루비 한자위의 히라가나 사용 권장
- 2) 시민생활: 차별을 금지하는 거주 주택 기본조례 제정. 일본인들이 외국인들에게 임대하기를 꺼려함. 거주지원대책위에서 보증을 해줌.

[7] 2008. 6. 26. 10:00-12:00

재일코리안청년연합(KEY)

인터뷰 대상자 : 김봉양 공동대표

## 1. 재일코리안청년연합 소개

- 1991년 오사카에서 구성됨.
- 새로운 재일동포 청년 단체의 필요성을 느낌. 민단과 총련으로부터 독립된 단체.
- 350-400명이며 동경, 오사카, 고베에 6개의 지역단체가 있음. 사무국은 오사카에 위치함.
- 공동대표 2명과 상근자 3명.
- 목적은 재일코리안의 임파워먼트,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체성 성립, 이데올로기 관계 없이 언어와 역사를 배우는데 있음.
- 1주일에 한번 한국어 강좌 및 월 한번 역사강좌
-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
- 일본시민단체들과 연대

## 2. 다민족 다문화 공생에 관하여

- 90년대 중반에 사용된 용어이며 공생에는 평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소수자들이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음.
- 누가 누구와 공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듦. 행정 측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임.
- 재일외국인의 구성이 매우 달라졌다. 90년대만 해도 재일한국조선인이 대다수 그러나 후반에 와서 중국, 남미 일본계 외국인이 급속도로 증가함.
- 작년 중국인이 최대 소수민족이 됨.
- 재일한국조선인들 사이에도 뉴커머와 올드커머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함.
-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만 뉴커머들은 생활에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문

제에 관심을 가짐.

- KEY에서도 2-3년전부터 구체적인 실천방안 고민 시작.
- 그러나 매우 미비. 현재 인종차별철폐네트워크, 외국인인권법네트워크, 부락민해방동맹 등 다양한 시민단체, 변호사 단체 등과 연대 추진